

대행 스님

모든걸 마음 안으로 두고 항상 날날이 그 마음으로 돌리세요

어떤 맘으로 주인공을 찾아야 하나요

질문 : 누구나 자기의 삶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겠지만, 저 또한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매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끔 대행 스님의 모습과 법문을 대하면서 지친 마음을 애써 다독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사는 게 답답하기만 하고 어느 날 주인공에 맡기라는 말 또한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인공을 찾아야 하는지요.

답변 : 첫째는 무조건 '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거다.' 하고서 관하는 거고, 둘째는 가정살이 돌아가는 것 전부 '그놈이 하는 거니까.' 하고 관하는 거죠. 그놈이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습니까, 네? 이거 보세요. 내가 말하는 건 잘되고 못되고 그걸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, 잘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, 잘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.

그것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우주간 법계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일체제불이 한 골수에 들어서 한자리를 할 수 있다면…. 내일 죽는다, 이따 죽는다, 우리 식구가 다 멸망한다 이러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결사적인, 나를 버린 그 마음이 정통으로만 들어간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? 뭐가 답답합니까?

그게 다 욕심입니다.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? 욕심입니다.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늠름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칼을 뺄 때는 그냥…. 이거 보세요. 악으로 사는 사람이 칼을 썩 뺐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. 그러나 살리는 칼을 썩 뺐을 때는 수많은 중생들을 다 살릴 수 있고,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,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한 칼로다가 부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.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? 내일 죽으면 어떻고, 이따 죽으면 어떻고, 식구가 다 죽으면 어떻습니까? 어차피 한 번 죽을 거! 안 그렇습니까?

이 말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안됐다고 생각합니까? 아휴 참! 이 세상, 이 길, 그냥 걸을 뿐이에요. 우리가 그냥 살 뿐이에요. 왜 사나?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가는지 알아야 답답하지 않다 이 소립니다. 야! 이거 뭐, 캠핑 와서 잠시 있는데,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우주간 법계에 다 통신이 되는구나. 이럴진대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랴.

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. 소 한 마리를 잡는다 해도 걱정이 없고, 소 한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, 이 세상이 다 없어진대도 걱정이 없고.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, 아니, 그놈의 거 하나하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건지고 살릴 수 있겠습니까? 가정도 그래요. 이판사판이에요. 두 가지뿐에요. 죽느냐 사느냐 요거뿐이지,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?

어떤 스님이 날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. "스님, 이 토굴의 문에 못 좀 박아 주십시오." 그래서 "못은 왜?" 그러니까 "들어간 뒤에 바깥에서 못을 박아서 못 나오면, 죽지 않으면 얻을 거 아닙니까? 죽지 않으면 얻고 얻지 못하면 죽고, 이거 둘뿐 아닙니까?" 이거예요.

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요, 정말 아주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, 너그럽게 두루 할 수 있고, 항상 싱그레 웃고, 남이 갓 미쳤다고 할 정도로 싱그레 웃고 길을 지나갈 수 있고, 소 둥구리를 봐도 싱그레 웃을 수 있어요. '저거 가엾다.', '저거 죽으러 가지, 뭐.'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. 왜? 아주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, 바로 그 순간에. 소 만 마리를, 아니, 어떤 거든지 만 마리가 모두 죽었다 그럴 때, 그것을 빗물 방울로 친다면 한 골짜기에 다 모였다 해도 한 골짜기에서 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일 뿐이지, 한 그릇이지 그게 두 그릇입니까?

여러분의 그 마음은 체가 없고 무량해요. 그래서 무량심이에요. 일심이자 무량심이고, 무량심이자 그 묘법이죠. 무심도법(無心道法)은 그렇게 무량해서, 지금 수만 마리가 죽으러 간다 하는데 불쌍해서 염불을 해 주고 그런다면 그건 벌써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. 지금 수십, 수백 마리가 죽으러 가는데 무슨 염불이 필요합니까? 염불하다 보면 벌써 다 늦는데, 하하하….

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모조리 이 한 그릇 자기 마음에다 탁, 거기다가 만 마리고 천 마리고 넣으면 그냥 자기 한 그릇이 돼 버리고 말아요. 그러니 그대로 그냥 인간으로 환토가 되는 거죠.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. 그렇게 자기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. 인간이 돼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. 그 속을 거쳐서 나가는 인간은 나와서도 정말 사람 노릇을 하고 이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지략과 아량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

그러니까 그대로, 못났든 잘났든 그대로 그냥 수순히 걸어가세요. 그냥 딱 세우곤 입 딱 다물고 그냥 걸어가다가 딱 닥칠 때 '네가 하는 거지.' 하란 말입니다. '너!' 하고선 말 안 해도, '너!' 할 때 그건 그냥 그대로 깜짝할 사이에요. 그러니 재생이 돼서 체가 나올 때는 거쳐서 나오는 그 시간이 있겠지만 이거는 자동적으로 불이 확 붙어서 끓는 쇠가 돼 가지고 직접 바로 나와요.

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. 그러니 앞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, 가난 때문에, 병고 때문에, 잘 살아야지, 위대하게 돼야지, 이런 것 때문에 이 공부 하지 마세요, 진짜. 진짜! '안 돼!', '이거는 어떠한 억겁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!' 하란 말입니다. '안 돼!' 하면 그냥 안 되는 거지. 나도 이렇게 왁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. 그러곤 그냥 손을 번쩍 쳐들어서 그냥 쳤단 말입니다. 야, 이게 진짜 깊은 물이 되기 때문에 큰 배가 뜰 수 있고, 큰 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중생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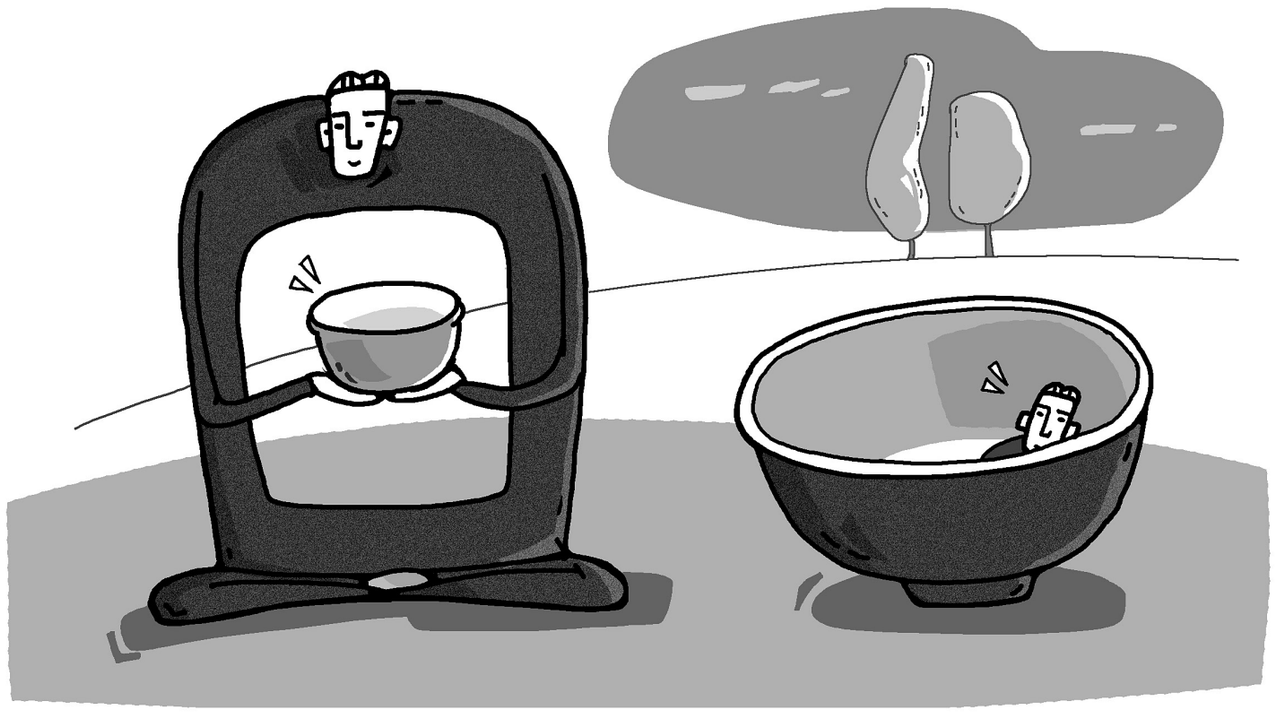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관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

질문 :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관하면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많아서 약간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.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법이라 하지만 아직은 좀 되는 쪽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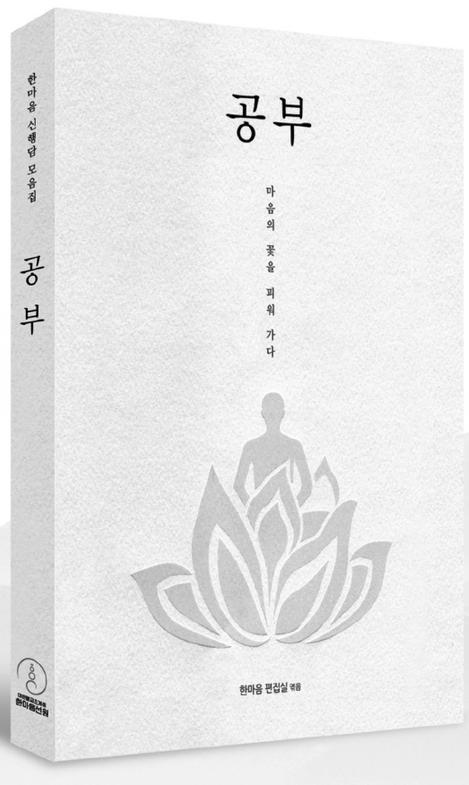
답변 : 안 되는 것도 놓아야 됩니다. 일부러 지금 공부 가르치느라고 자꾸 시험을 하는데 왜 자꾸 속습니까.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, 내가 없는데. 아, 내가 공했는데 안 되는 게 거기 붙을 게 어디 있으며 되는 게 붙는 게 어딨느냐 이겁니다. 그대로 내가 그냥 당당하게 하는 거죠. 여북하면 일시무시일이고 일종무종일이라고 그랬나요. 그리고 80종호라 그랬나요. 사무 사유를 한손에 쥐고 말입니다. 그대로 내가 종 칠 때 소리 나는 거지 뭐, 어딨느냐 이겁니다.

예를 들어서 아는 게 나오더라도 그냥 좋다 하지도 말고 '아, 거기서 하는 거지.' 무조건 한 일 년 반 내리 그냥 놔 버려야 돼요. '거기서만….' 날더러 그전에 이랬어요. 이 스승이 날더러 '죽어야 너를 본다.' 아, 이런단 말이죠. 그래서 죽기 위해서 차바퀴로 들어갔어요. 새벽에 떠나는 걸 알고요. 무척 큰 차니까 뭐, 한 번만 넘어갔다 하면 창자가 꿰지든지 뭐가 나지 않겠어요? 그래서 까맣게 입고 바퀴 밑에 들어가서 숨어선 이리로 넘어가게끔 딱 드러누웠는데 그 차가 안 가요. 반드시 떠날 텐데도.

그러니까 '죽어야 너를 본다' 그래서 죽으려고 했더니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나를 형성시킨 그 주인이 바로 제가 지금 들이고 내고 있는데 왜 자기가 거기 덧붙이기로 안 되느니 되느니, 덧붙이기로 그러느냐고요. 남일하는 데, 안 되든지 되든지 왜 상관을 하느

☞ 18면으로 계속

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



《공부》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
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.

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,
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,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
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.

한마음 편집실 엮음 | 256쪽 | 값 12,000원

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〈한마음〉에 실렸던
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.

판매처
●현대불교신문사 02-2004-8216
●운주사 02-3672-7181
●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-470-3118
●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
●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://www.hyunbulshop.com
한마음 블로그 『한그루의 숲』 http://blog.naver.com/hanjournal1

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
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
TEL : 031)470-3100 FAX : 031)470-3116
www.hanmaum.org